

# 제248차 원불교사상연구원 월례연구발표회 (온라인) 발표 자료집

**제248차 월례연구발표회**

2022. 03. 21.(월) 13:00 온라인 ZOOM  
ID 358 739 2689 / PW 0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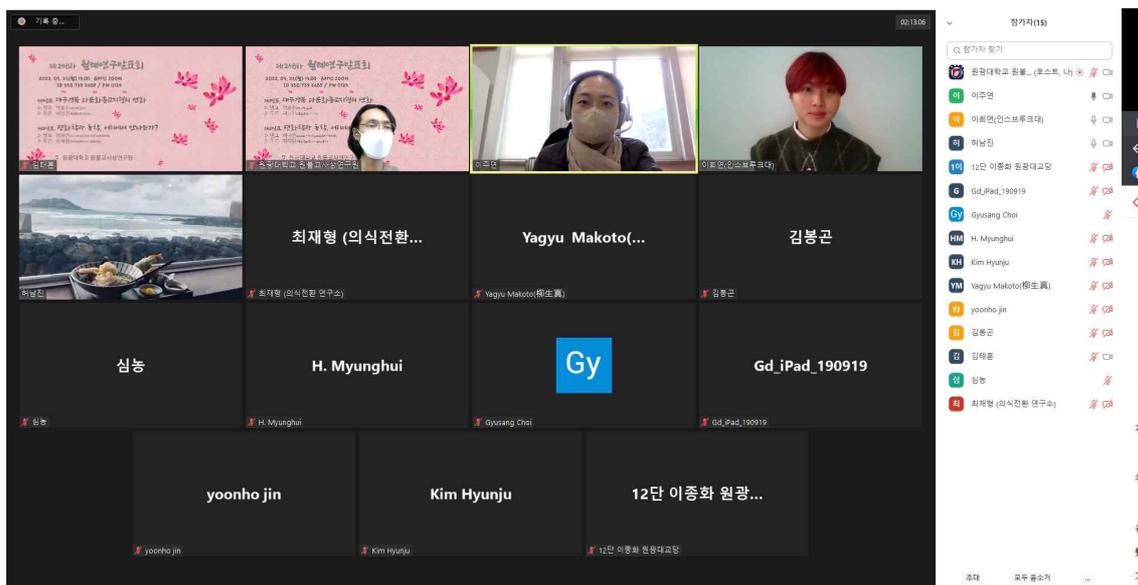
**제1발표. 대구경북 다문화종교지형의 변화**

- ▷ 발표 박중수 (대구대 교수)
- ▷ 토론 허남진 (원광대 연구교수)

**제2발표. 평화학과 동학, 어디에서 만나는가?**

- ▷ 발표 이희연 (오스트리아인스부르크대 대학원)
- ▷ 토론 최재형 (의식전환연구소 공동대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The screenshot shows a Zoom meeting in progress. The main window displays a grid of participants. In the top-left corner, there are two thumbnails of the presentation slide from the previous image. Other participants visible include:

- 최재형 (의식전환...)
- Yagyu Makoto(...)
- 김봉곤
- 심능
- H. Myunghui
- Gy
- Gd\_iPad\_190919
- yoonho jin
- Kim Hyunju
- 12단 이종화 원광...

On the right side, a list of participants is shown with their names and status (e.g., muted, video off). The list includes names like 이주연, 이희연, 허남진, 최재형, 김봉곤, H. Myunghui, Kim Hyunju, Yagyu Makoto, yoonho jin, 심능, and 최재형.

## 대구경북 다문화종교지형의 변화

—대구경산 지역의 이슬람교 확산 현상을 중심으로—

박종수

차례

1. 다문화사회 ≒ 다종교사회
2. 대구지역의 역사적 전개와 종교지형
3.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화
4. 대구지역 종교지형에 대한 전망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종교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먼저, 대구지역의 지역적 성격을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구지역의 종교지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핀 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종교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동에 대해 전망하였다. 대구지역 종교지형은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전통적 종교지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특히, 무슬림의 증가로 인한 이슬람사원의 설립과 할랄식품점의 증가는 대구지역 내 이슬람교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이슬람교의 확장을 이슬람포비아로 대응하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 보수진영이다. 천주교와 불교 등 기존의 종교들은 이슬람을 이주민, 다문화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개신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가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제어: 대구지역, 다문화사회, 다종교사회, 한국종교지형, 이슬람교

## I. 다문화사회 ≙ 다종교사회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현상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상호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구화 또는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보편화로 글로벌한 이주민이 특정한 로컬로 이주하여 선주민과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통계월보』 2022년 1월호)에 따르면, 한국사회에는 2022년 1월말 현재 1,947,659명의 이주민(체류 외국인의 수)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남한 인구의 약 4.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세계 인구 대비 평균 디아스포라(diaspora)의 3.1%보다 높은 수치이며,<sup>1)</sup> 한국사회가 고령화 및 저출산의 문제로 이주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좀 더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변화에 따른 대비가 요청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 다문화사회가 빚어내는 다종교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와 종교의 관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문화사회는 다종교사회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다종교사회의 쟁점과 과제 및 전망을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으로 전수 조사된 바 있다. 물론, 2015년 11월 말에 (표본)조사를 마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05년보다 종교인구가 약 9% 줄었지만,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여전히 문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종교가 국가종교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신종교’ 순으로 한국종교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처럼, 한국종교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며 한국종교의 내용 또한 변화한다. 한민족문화의 원형으로서 한국종교를 ‘무’(샤머니즘)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대 한국종교를 다룰 때는 지역 또는 공간적 범위로서 한국사회 내에서 한민족이 신앙하는 종교들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다문화사회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서 이주민의 종교가 한국사회에 유입되면서 한국 종교지형의 형성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슬람권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의 증가로 이슬람센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종교생활을 위한 ‘할랄(Halal: 이슬람 교리에 따라 허락된 것)’ 음식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기존의 종교공간에 긴장감을 주면서 무슬림에 대해 주목하고 대응하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종교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주목한 곳은 대구지역이다. 대구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정치적·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종교지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핀다면 보수화된 다른 지역의 종교지형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종교지형의 변화를 지역적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본 연구는,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외래종교의 유입이 한국종교지형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1) 최종렬, 「탈영토화, 에스닉 집적지 그리고 초국적 이방인-대구 북부정류장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5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232쪽.

2) 2015년 12월, KBS1 TV에서는 특집다큐멘터리로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를 3부작으로 방송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1부에서 ‘이슬람, 종교가 아닌 비즈니스로’(12/5), 제2부에서 ‘할랄푸드 시장을 잡아라’(12/6), 제3부에서 ‘미래의 블루오션, 무슬림 관광시장’(12/13)을 방영하였다. 특히, 제3부에서는 한국을 찾는 무슬림들이 춘천의 ‘남이섬’을 많이 찾는다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무슬림을 위한 카페(기도실과 우두를 갖춘)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 대구지역의 지역적 성격을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살펴본다. 그리고 대구지역의 종교지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핀 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종교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동에 대한 전망을 해볼 것이다.

## II. 대구지역의 역사적 전개와 종교지형

### 1. 대구지역의 역사적 전개

대구지역에는 월성동과 서변동유적 등의 발굴을 통해서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구라는 지명은 삼국시대부터 유래한다. 삼국시대 대구의 옛 이름은 다벌(多伐), 달벌(達伐), 달불성(達弗城), 달구화(達句火), 달구벌(達句伐)이라 표기 되었는데 ‘화(火)’와 ‘벌(伐)’은 촌락, 읍성을 뜻하는 말이며, 달(達)은 원(圓), 주(周) 등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sup>3)</sup> 삼국통일 이후 군현제 실시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던 대구지역은 그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비중이 높아져 신문왕 9년(689년)에 새로운 도읍의 후보지로 부각되어 천도(遷都)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sup>4)</sup>

통일신라시대를 이어 건국된 고려왕조가 수도(首都)를 송악(松岳)으로 정하자 대구지역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지리적인 측면의 비중은 약화되었다. 건국 초에 고려 왕조는 신라의 지방제도를 답습하다가 현종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지역개편을 시작으로 몇 번의 변천을 거쳐 결국 5도양계(道兩界), 4도호부(都護府), 8목(牧), 15부(府), 129군(郡), 335현(縣), 29진(鎭)으로 확정되었다.<sup>5)</sup>

고려의 체제개편은 현종 9년(1018년)의 지방제 개편에서, 통일신라시대와 같이 대구현의 영현은 수창군이었지만, 수창군이 통일신라시대의 9주(州) 5소경(小京) 하에서의 양주(良州)에 속했다가 이때에 경상도 상주목(尙州牧)의 경산부(京山府) 관내가 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속현·속군 등의 임내(任內)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지방 향리(鄕吏)들의 자치에 맡겼다. 하지만 예종대(代) 부터의 대량적인 유민(流民) 발생이 지방관 파견의 필요성을 제고하였고,<sup>6)</sup> 이러한 경향은 수창군의 영현이었던 대구현에도 영향을 미쳐 인종 21년(1143년)에 현령(縣令)이 파견되었다.<sup>7)</sup> 뿐만 아니라 수창군의 영현이었던 화원현과 하빈현이 대구에 이속되고,<sup>8)</sup> 충렬왕 때에는 의성현(義城縣)이 대구에 이속되었다가 복구되기도 하였다.<sup>9)</sup> 이처럼 수창군에 속했던 영현들이 대구로 이속된 것은 대구현의 발전속도가 점차 수창군을 능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반증이다.

대구에는 조선 초기만 해도 농업지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행정 도시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사적, 교통적 요지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선조 34년에는 감영(監營)이 설치되었으며 이로서 대구는 영남(嶺南)을 대표하는 정치·행정·군사경제적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려말기에 이미 대구의 속현이었던 화원현은 그동안 대구에서 성주목(星州牧)에 이속되어 있었고, 세종(世宗) 원년(1419년) 5월에는 대구현이 대구군(大邱郡)으로 승격하였는데 당시 대구

3)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1권 통사, 1995, 244쪽.

4) 『삼국사기』권8, <신라본기>;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1권 통사, 1995, 245쪽.

5) 하현강, 「고려지방제도의 연구」, 『한국연구총서』32, 한국연구원, 1997.

6) 이수건,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에 대하여」, 『영남사학』1, 1971.

7) 『고려사』<지리지> 대구현.

8) 『고려사』<지리지> 화원현·하빈현.

9) 『고려사』<지리지> 의성현.

본군(大邱本郡)과 수성·하빈·해안의 3개 속현을 합친 호구(戶口)는 1,249호(戶)에 8,629구(口)에 달했다.<sup>10)</sup>

대구에는 고종(高宗) 32년(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상도 감영이 계속 상주 하였으며, 그 후에 있어서도 한일합방 시까지 지방제도의 변천에 관계없이 대구가 경상도 도치(道治)였던 점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sup>11)</sup> 영조 26년(1750)에는 대구의 유생(儒生) 이양채(李亮采)가 대구의 구(丘)자가 공자의 이름인 구(丘)와 같은 자이므로 공자의 이름을 직범(直犯)하여 인심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바꾸고자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정조(正祖), 현종(憲宗) 때는 대구(大丘)와 대구(大邱)가 혼용되다가 철종(哲宗) 이후에는 대구(大邱)만을 사용하게 되었다.<sup>12)</sup>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1907년 서상돈, 김광제 등이 중심이 되어 기울어져 가는 국권을 금연, 금주로 되찾으려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915년 서상일 등은 영남지역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3·1만세운동에서 대구지역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7년에는 신간회 대구지회가 결성되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열단원 장진홍에 의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구지역에서는 1930년대 이후에도 학생들의 비밀결사운동이 계속되었고,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한 지속적인 항일 투쟁이 전개되었다.

미 군정 이후,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대구부는 대구시로 개칭되었으며, 1950년 6·25 전쟁 중에 대구는 수많은 피난민의 피난처가 되었고, 낙동강방어진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계속되자, 대구지역 학생들은 2월 28일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를 감행하였다. 2·28민주운동은 이후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와 더불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1년에는 달성군의 월배읍, 성서읍, 공산면, 칠곡군의 칠곡읍, 경산군의 안심읍, 고산면을 편입하여 대구직할시로 승격하였으며, 1995년에는 달성군을 편입하여 대구광역시로 되었고 행정구역의 광역화로 영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 2. 대구지역의 종교지형

대구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불교와 유교, 천주교, 개신교, 신종교 등의 종교지형이 형성되어 왔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종교인구는 약 53%인 24,970,76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지역 종교인구는 약 54%로 나타났다. 전국 종교인구의 종교별 분포는 불교가 약 43%, 개신교가 약 35%, 천주교가 약 20%, 원불교가 0.5%, 유교가 약 0.4%,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가 각각 0.18%, 0.14%, 0.02% 순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대구 종교인구의 종교별 분포는 불교가 61%, 개신교가 약 19%, 천주교가 약 18%, 증산교가 약 0.23%, 원불교가 약 0.15%, 유교, 천도교가 각각 0.2%, 0.13%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성별간 종교인구 비율은 남성의 경우 51%, 여성의 경우 58%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1) 불교

삼국시기 대구 지역에 세워진 사찰은 동화사(桐華寺)와 부인사(符仁寺; 夫人寺)다. 동화사는 극

10) 세종7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는 대구군의 속현으로 수성·하빈·해안의 3현만이 기재되어 있다.

11)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1권 통사, 1995, 703쪽.

12)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 1982, 39쪽.

달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불렸으나, 왕가의 원당으로 중창자인 심지왕사가 부왕인 현덕왕을 중심으로 한 왕실의 복을 기원하는 원당으로 동화사로 개칭하였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의 본사로 총림을 형성하고 있다. 부인사는 현재 대구광역시 신무동에 소재하는데, 매년 3월 15일(음력)에 선덕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부인사의 부인(夫人)은 선덕여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덕여왕의 원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찰에는 초조대장경판이 봉안되었으나 고려 고종19년(1232)에 제2차로 침입한 몽고에 의해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동화사의 말사(末寺)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화엄종의 사찰이었다.

통일신라 이후 창건된 사찰은 동화사와 부인사보다 적은 규모의 사찰인 파계사, 안일사, 임휴사, 은적사, 염불암 등이 세워졌으며, 왕실 또는 권력과 진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불교는 새로운 창건보다는 기존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쳤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시행규칙으로 인해 통제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보현사, 법륜사, 관음사, 대성사, 정혜사, 통천사, 대덕사 등이 세워졌다.

## 2) 천주교

경상도 지역에는 1760년경까지도 천주학이 전래되지 않았으며, 이황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어 추노지향(鄒魯之鄉)을 자처하는 만큼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서 새로운 사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왔다. 하지만 서학(西學)의 경우 천주교의 수용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성립이전에 신앙실천운동이 이 지역에서 먼저 있었다. 홍유한은 영남지방에서 처음으로 서학을 연구해 신앙으로 받아들인 첫 신자였으며,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집행했던 곳이다. 이러한 점은 대구지역이 한국교회의 성립 이전에 신앙의 대상으로서 서학을 다른 지방보다 먼저 받아들인 곳으로서의 의의가 있다.<sup>13)</sup>

천주교는 두 차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이동과 확산이 계속되었는데, 영남지역에는 태백산, 소백산, 순흥, 봉화, 울진, 예천, 상주, 안동, 영양, 청송, 진보, 대구, 안의, 진주, 함안, 고성 등 16개 지역에 전파되었다.<sup>14)</sup> 신앙의 자유가 목인되던 1882년부터 1889년 말까지 영호남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을 통해 연평균 165명의 신자가 늘어났다.<sup>15)</sup>

1886년 대구본당이 설정된 이후 1910년까지 영호남지역에는 모두 18개의 본당이 증설되었다. 1886년 대구본당을 필두로 부산본당(1889), 가실의 낙산본당(1894), 금천 황금본당(1901), 마산 완월동본당(1901), 진주의 문산본당(1904), 영천의 용평본당(1907) 등 7개 본당이 증설되었다.

일제 강점기 후 1948년 8월 29일 파리의방전교회는 서울과 대구교구를 온전히 한국인 성직자들에게 위임하고 철수하였다. 한국인에 의한 자치교구로 성장한 대구교구는 바로 그해 12월 9일 최덕홍 신부가 제6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949년 1월 30일 주교서품 및 교구장 착좌식을 가졌다. 대구교구는 쾰베네딕도 수도회에 칠곡, 성주, 선산 지역에 포교를 위촉하고 대리구를 설정하여 최덕홍 주교의 주체로 착좌식도 가졌다.

## 3) 개신교

개신교가 대구지역에 전래된 것은 1893년 4월 22일 베어드에 의해서이다. 베어드가 1896년 10

13)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 백년사』, 1986, 117쪽.

14)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1995, 738-787쪽.

15)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 백년사』, 1986, 138쪽. 천주교식 무료 장례예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며 입교동기를 마련하였고, 고아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월 서울지역 교육담당 고문으로 임명되어 가자, 그의 처남인 아담스가 대구에 최초의 교회(대구읍 교회, 대구제일교회)를 세웠다. 대구에 교회가 세워지고 의료 및 교육사업과 선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광무 2년(1898) 10월 1일 제일교회 구내에 제중원을 열고 의료선교사 존슨이 원장으로 취임했다. 제중원은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방 최초의 서양의료기관으로 그 뒤 동산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구시 동산동 현 동산병원 자리로 옮겼다.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초·중등학교가 세워지자 경북 일대에 산재한 교회들이 다투어 학교를 설립하여 1910년에 이르는 사이에 39개의 교회가 학교를 세웠다. 한국교회가 독노회를 창립하여 독립한 것에 발맞추어 대구·경북 교세도 크게 성장하였는데, 제일교회의 경우는 1907년과 1933년에 두 번의 준공을 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대구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 623개였던 교회가 2000년에는 1,091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서 교직자(성직자 또는 종교전문가)도 1,365명에서 2,611명으로 증가하였다.

#### 4) 신종교

해방 이후 대구지역에서의 신종교는 불교계의 분파인 진각종이 대두하였으며, 중국 도교계통의 신종교 교단이 생겨났다. 그리고 1960년대 말부터 신암동과 내당동, 비산동 등 외곽지역에 정일회(正一會; 한일교) 등이 생겨나기도 하였다.<sup>16)</sup> 최근에는 원불교와 대순진리회 등의 종교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 III.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화

2015년 10월말 현재 영남권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25,503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약 20%에 해당한다. 물론 미등록 외국인의 수의 합하면 이 수치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외국인이 영남권에 체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대구 지역에는 약 25,000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달서구-북구-달성군-서구-동구-수성구-남구-중구’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출신 국적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미국-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파키스탄-타이완-네팔-일본-타이-미얀마-캐나다-몽골-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의 순이다.

국내 유입된 무슬림의 권역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랍계는 이집트인, 수단인, 사우디인, 모로코인, 튀니지 이라크, 리비아, 바레인, 레바논, 예멘, 알제리,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아랍인들이다. 2) 비아랍중동계는 터키와 이란인이다. 터키인들과 비교할 때 이란인 이주민들의 숫자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란인 이주민들은 시아 무슬림으로서 다수 무슬림들이 모이는 마스지드(Masjid)나 소규모 예배 모임인 무살라(Musallah)에 모이는 경우가 드물어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3) 중앙아시아계는 우즈베키스탄인, 카자흐스탄인, 키르기스스탄인 등이다. 4) 남아시아계는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등이며 5) 동남아시아계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다.<sup>17)</sup>

조선 중기 이후부터 영남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한 대구지역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을 비롯하여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지리학, 건축학, 조경학 등의 분야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와 최근의 후기 근대적 양상을 포함하는 도시사 연구의 진

16)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1권 통사, 1995, 878쪽.

17) 조희선·김대성·안정국·오종진·김효정,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27-2, 2008b, 85-86쪽.

행이 병행될 필요가 요청된다. 또한 종교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때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구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펴본 후, 이 지역에 최근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무슬림들의 현황과 그들의 종교생활, 그리고 그들로 인해 이 지역의 종교지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슬람교의 유입과 확장

대구지역이 수구보수의 본고장처럼 인식되게 된 계기는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관련이 있다. 1946년 대구에서 일어난 10월 항쟁이나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진보당 조봉암 후보의 높은 득표율, 1960년의 2·28 학생의거, 교원노조의 전국 최초 결성 등은 대구지역이 지금과 같은 보수적인 지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박정희 집권 이후 대구지역이 권력의 소외지역에서 권력의 수혜지역으로 바뀌면서 점차 대구지역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화되었다. 특히,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이 지역 출신의 군부지도자들이 약 30년간 국가권력을 장악하면서 국가주의, 반공주의, 성장주의, 친미주의, 친자본주의라는 이념적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sup>18)</sup>

대구지역의 다문화 공간은 지역의 공업단지를 바탕으로 크게 두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은 성서공단 주변에서 다문화 공간이 나타나며,<sup>19)</sup> 각 에스닉 집단의 공동체와 더불어 종교공동체들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특히, 종교공동체로서 무슬림의 공동체를 다룬다.

대구지역에서 이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지역은 달서구에 위치한 성서공업단지 주변이다. 성서공단은 1965년에 1차 단지 2,720㎡의 면적으로 공업지역이 결정 고시되어, 1984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 걸쳐서 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sup>20)</sup> 섬유와 조립금속, 석유화학 등 1,093개 업체에 약 4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공단의 입주와 더불어 주변에는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성서공단1단지가 조성된 곳은 2006년 현재 958개의 업체가 조업 중이며, 섬유 의복과 조립금속 등이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성서공단의 조성과정은, 1990년 11월부터 이곡동, 신당동, 용산동, 장기동 일원 총 95만평 지역을 성서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였고, 1992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였으며, 1994년에 1차지구가 형성되었고, 1998년 2차지구가 형성되었다. 특히 경부선과 구마선, 그리고 88고속도로가 연결된 성서IC와 남대구IC가 이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대구IC의 확장으로 교통이 편리해졌다. 또한 6만 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과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하여 생활 편의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근로자들의 주택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대구 도심의 배드타운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곡동, 장기동 일대의 주택지구는 이주민들이 입주하지 전부터 형성되었던 불량주택지구와 성서공단이 형성될 때 공단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이주민 주택지가 복합된 지역이다. 이들 주택들은 예전부터 노동자들이 이용하던 쪽방으로의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원래부터 있던 가옥의 대부분은 방과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욕실은 없다. 반면,

18) 백승대, 「보수와 진보의 지역정치: 대구지역사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4, 6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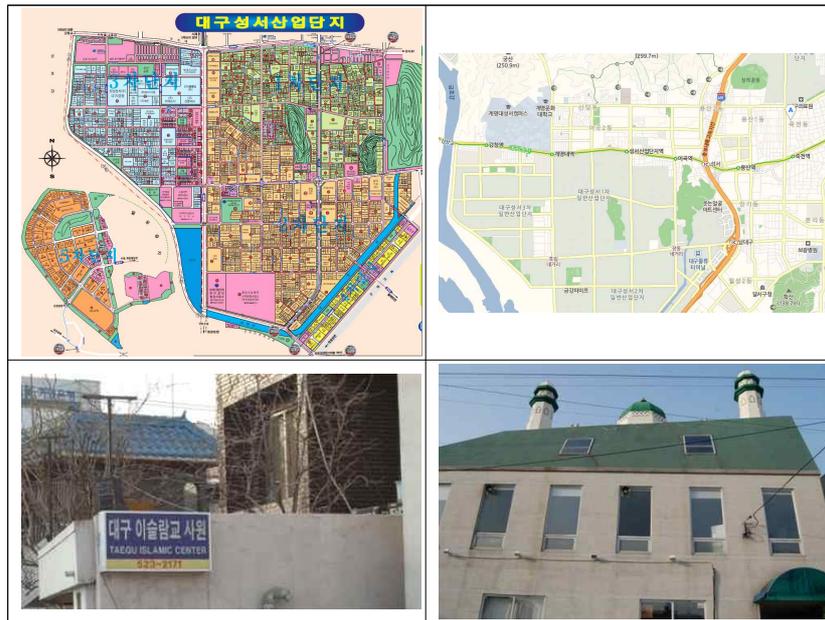
19) 이에 대한 연구는 조현미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12-5, 2006; 최종렬의 「탈영토화, 에스닉 집적지 그리고 초국적 이방인: 대구 북부정류장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50, 2013 → 참고문헌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음; 이예지, 「한국사회 다문화성의 개방과 폐쇄의 역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국제결혼, 유학생, 다문화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등이 있다.

20)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ngseo.or.kr>) 2015.11.15.검색.

이주민들의 가옥은 대체로 2층 이상의 다가구주택으로, 주인가족이 살고 있는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방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주민과 이주민에 관계없이 인근에 소규모의 영세공장이 많은 이유로 일찍부터 이 지역은 이동이 잦은 노동자들의 주택공급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유입에 대하여 비교적 거부감이 적은 지역이었다.<sup>21)</sup>

대구지역 다문화 공간은 아래의 <그림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1> 대구지역 다문화 공간



대구 성서공단 입지도(사진 上)  
대구 이슬람교 사원(사진 下)

대구 이슬람교 사원 지도(사진 上)  
대구 이슬람교 사원 건물(사진 下)

대구 지역에 이슬람교가 언제 유입된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1999년부터 이다. 이들은 사업가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무슬림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2006년까지 여섯 차례나 장소를 옮기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에 이슬람 센터를 마련하였다. 대구 이슬람센터는 총 3층으로 1층에 도서관과 교육원,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예배당, 3층에는 예배당 및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유입되던 이주민의 유입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혼 이민자, 유학생, 기업투자 및 사업을 위한 장기체류자 등이 늘어나면서 그 유입의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무슬림 집단도 예외가 아니다. 2006년 출입국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랍계 무슬림의 경우, 노동자-기업인-유학생-결혼이민자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비아랍계 무슬림은 노동자-결혼이민자-유학생-기업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아시아계 무슬림은 노동자-결혼이민자-유학생, 동남아시아계 무슬림은 노동자-결혼이민자-기업인 순으로 나타났다.<sup>22)</sup> 국내 유입된 다섯 권역의 무슬

21) 조현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12-5, 2006, 543-552쪽.

22) 조희선·김대성·안정국·오종진·김효정,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림 집단들은 대체로 노동자가 많았으며, 아랍계 무슬림보다는 아시아계 무슬림들이 결혼이민자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시아계 무슬림이 결혼이민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일반 이주민 지원단체와 함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국내 거주 무슬림들은 각 지역의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짙다.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35,000여 명의 무슬림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안양, 안산, 부평, 파주, 경기광주에 이슬람성원(마스지드)이 있으며, 안산, 포천, 인천, 서울송파, 제주, 대전, 김포, 경산 등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성원과 센터의 구분은 기존의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편의적으로 구분하는데, 그 역할은 동일하다. 경산 지역 진량공단에 위치한 이슬람성원(마스지드)는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소유이다. 이주민들의 주거공간이나 근무지 등에 60여개의 간이 예배소(무살라)가 만들어져 있으며, 도시의 경우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숙소 형태로 되어 있다. 도시 외곽 또는 농촌의 경우,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간이 예배공간은 비공식적인 시설이며 자주 없어지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다.<sup>23)</sup>

대구 성서공단 인근에 위치한 이슬람성원은 평균 30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한다. 죽전동의 한가운데 위치한 파키스탄인이 경영하는 식품점은 살라트와 할랄푸드('신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를 드린 후 짐승의 경동맥을 단칼에 잘라 도살한 고기를 가리키며,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잡은 고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할랄푸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공단 주변에 형성된 '아시아 마트(Asia Mart)'는 무슬림을 비롯한 국경을 초월한 이주민들의 네트워크 활용 공간이면서, 자신들의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존재에 대한 욕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sup>24)</sup>

## 2. 이슬람교의 유입에 따른 종교지형의 변화

대구지역에서 살아가는 무슬림들은 대체로 이슬람적 가치를 지키며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무슬림조차 이주한 곳에서는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 무슬림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성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생활이다. 무슬림들에게 개인예배의 실행 유무는 신앙의 척도가 된다. 대구가톨릭대에 학부생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 246명 중 35명이 무슬림인데,<sup>25)</sup> 이들은 대체로 개인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하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경우, 국제처 및 국제학생센터, 그리고 교목처 등의 협조로 무슬림 유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최근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27-2, 2008b, 92-93쪽.

23) 엄한진, 「한국사회 이주민 종교공동체의 실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14,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원, 2010, 17쪽.

24) 조현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12-5, 2006, 551쪽.

25)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대구가톨릭대에 학부생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은 246명으로 종교가 없는 학생은 175명이었고, 이슬람교가 35명, 천주교가 25명, 개신교가 7명, 불교가 4명으로 나타났다. 무슬림 학생들의 국적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였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파키스탄이 각각 2명과 1명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이슬람사원이 인접한 죽전초등학교에서는 무슬림 학생 5명을 위해서 돼지고기와 달걀을 콩으로 바꿔 별도로 급식 식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등 일부 음식을 먹지 않아 굶거나 별도의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6)</sup>

#### IV. 대구지역 종교지형에 대한 전망

대구지역은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전통적 종교지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앞서 살폈듯이, 무슬림의 증가로 인한 이슬람사원의 설립과 할랄식품점의 증가를 비롯하여, 기존 선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은 대구지역에서의 종교지형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9.11 테러 때는 종래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 미국중심의 교육, 미국문화의 영향으로 거의 미국 중심의 글로벌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국의 지식인들과 여론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태도와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이슬람권의 생각과 무슬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그런데 2015년 한국인의 IS 가입 및 IS의 프랑스 테러 등의 사건 이후,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sup>27)</sup> 대구광역시에서는 2012년에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이민정책이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87%로 나타났었다. 향후 이민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나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3%로 나타났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무슬림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일자리와 같은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28)</sup>

서울 이태원지역에서 보여주었던 이슬람교의 증가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단체들이 보여주었던 냉소적 무관심 전략이 대구지역에서는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현상이 개신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9)</sup> 개신교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춘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무슬림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한 후, 교회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sup>30)</sup> 현재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무슬림의 증가에 따른 대구지역에서의 종교지형의 변화에는 개신교의 대응이 중요한 몫을 하리라 전망되고 있다.

26) 《세계일보》 2015.9.22. 「대구 죽전초 이슬람권 학생 맞춤형 급식」 참조.

27) 《연합뉴스》 2015.11.25. 「이주민 단체들 “파리 테러 때문에 경찰 감시 심해져”-이주민 관련 단체들과 인권변호사들이 1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파리 테러 관련 특별대책’이라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발상은 아무 이유 없이 이주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28) 박종수, 「한국사회의 이슬람혐오 현상과 쟁점-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29,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2017, 63쪽.

29) 박종수, 「이태원지역의 종교공간적 특성과 다문화공간으로의 이해」, 『서울학연구』51,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3, 155-179쪽 참조.

30) 이진구, 「다문화시대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 인식: 이슬람포비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19,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1, 163-194쪽.

<참고문헌>

- 『경상도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 1982.  
대구대학교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 백년사』, 1986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1권 통사, 1995.
- 박종수, 「이태원지역의 종교공간적 특성과 다문화공간으로의 이해」, 『서울학연구』 51, 2013.  
\_\_\_\_\_, 「한국사회의 이슬람혐오 현상과 쟁점-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9, 2017.  
백승대, 「보수와 진보의 지역정치: 대구지역사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4.  
엄한진, 「한국사회 이주민 종교공동체의 실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 14, 2010.
- 이수건,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에 대하여」, 『영남사학』 1, 1971.  
이예지, 「한국사회 다문화성의 개방과 폐쇄의 역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국제결혼, 유학생, 다문화 특화 거리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진구, 「다문화시대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 인식: 이슬람포비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9, 2011.  
조현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2006.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1, 2009.  
\_\_\_\_\_, 「한국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논총』 29-1, 2008.  
조희선·김대성·안정국·오종진·김효정,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 『한국이슬람 학회논총』 18-1, 2008a.  
\_\_\_\_\_,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27-2, 2008b.  
\_\_\_\_\_, 「한국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1-3, 2009.  
조희선·김대성·안정국·오종진·김효정·유왕중, 「코슬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2010.  
지중화, 「다문화사회와 한국 무슬림의 적응과 대응」,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1-2, 2011.  
하현강, 「고려지방제도의 연구」, 『한국연구총서』 32, 한국연구원, 1997.  
허창수, 「한국 내 인도네시아 이주민 공동체 다문화지도」, 『교육인류학연구』 12-2, 2009.  
황병하, 「무슬림의 한국문화수용 정도와 향후과제-이슬람권 유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 학회논총』 18-1, 2008.
- 《세계일보》, 「대구 죽전초 이슬람권 학생 맞춤형 급식」, 2015.9.22.  
《연합뉴스》, 「이주민 단체들“파리 테러 때문에 경찰 감시 심해져”」, 2015.11.25.  
KBS1 TV 특집다큐멘터리,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3부작), 2015.12.5.-13.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eongseo.or.kr>).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Religious Geography in Multicultural Society  
–Focusing on the Religious Geography in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 of Korean religious geography in multicultural society, with a special focus on Daegu. Having examined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Daegu and the development of its religious geography in history, I explore the change of the geography in the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A prospect to possible change in the religious geography in the city has been made at the end. There is a cleavage in the traditional religious geography in Daegu as a result of diverse immigrants. In particular, Muslim has expanded in the cit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osque and Halal food shops for the growing number of Muslims. It is the conservative Protestantism that responds to the expansion of Muslim with Islamophobia. In contrast to Protestants, Catholics and Buddhists tend to take Islam as immigrants and a multicultural. The change of these reaction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hange of the religious geography in Daegu.

Keywords: Daegu, multicultural society, multireligious society, Korean religious geography, Islam

## 토론

### “대구경북 다문화종교지형의 변화-대구경산 지역의 이슬람 확산 현상을 중심으로” 토론

허남진(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한국 사회 역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종교학 영역에서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그만큼 오늘의 발표논문이 갖는 학문적 의의는 크다.

본 발표문은 다문화사회라는 변화 속에서 종교지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대구경북’지역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① 대구지역 종교지형은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전통적 종교지형의 변화가 나타났다. ② 특히 이슬람의 할랄식품점의 증가는 이슬람교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이러한 이슬람교의 확장에 대한 개신교 보수진영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④ 반면 천주교와 불교는 다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표자는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통해 다문화사회는 다종교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전제에서 대구의 이슬람교의 유입과 확장에 주목하면서 종교지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토론자는 몇 가지 토론거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가 활용하고 있는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2022년 『통계월보』를 활용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분석 자료들은 2018년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 2015년 자료이다. 특히 “Ⅲ.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화”에서 영남권과 대구지역의 외국인수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어느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자료의 활용과 최근의 현상에 대한 논의가 없다보니 최근 대구 이슬람 사원건축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슬람교의 유입에 따른 종교지형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종교인구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발표내용은 ‘대구가톨릭대’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영남권, 대구경북, 대구 등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을지.. 따라서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종교지형은 외국 노동자의 유입(이주)과 외국 유학생들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구 지역에는 약 25,000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달서구-북구-달성군-서구-동구-수성구-남구-중구’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단순한 설명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즉

노동자들은 산업단지, 유학생은 대학가라는 일반적인 전제에서 분석하고 그러한 전제와 맞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어떤지..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공간’ 역시 이러한 틀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추상적 논의에 머물게 될 것이다.

셋째, 서론에서 보수적 개신교와 다르게 불교와 천주교는 이슬람을 ‘다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서술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제2발표

### 평화학과 동학, 어디에서 만나는가.

-한국과 서양의 자생적 지구화를 중심으로-

이희연

1. 서론: 지구적 전환기, 한국과 서양의 자생적 지구화
2. 존재적 차원: 객체성과 주체성
3. 시간적 차원: 인과성과 동시성
4. 공간적 차원: 수직성과 수평성
5. 통합적 차원: 합리성과 초월성
6. 결론

#### 1. 서론: 지구적 전환기, 한국과 서양의 자생적 지구화

21세기가 시작되고 난 뒤 우리는 많은 변화와 전환을 목격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일컬어 '전환'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전 지구적 전환의 시대이자 다시 돌아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왜 동학이 다시 소환되어야 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프로세스는 왜 확장되고 있는가? 아시아와 서양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화 운동과 양상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한계점에 닿은 자본주의와 낡은 탈식민주의 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 근본적이고, 더 깊고 넓은 차원의 논의와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에서는 동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지구 인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토착적·자생적 근대화'라는 말이 쓰인다. 이는 한국의 관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한 단어이다. 반면, 지구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근대화가 시작된 서양 사회에서 이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동학과 평화학의 접점으로 '자생적 지구화'라는 단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근대화를 넘어서 지구화·공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각 국가, 지역, 민족 등은 서로 다른 단위에 따른 분석과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지구화는 개별적인 관점과 공동체적인 관점을 두루 취해야 한다. 동학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과거의 동학을 인식하여 새로운 동학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공동체적인 관점의 동학에서 개별화·개인화된 관점으로 동학을 바라보려는 시도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방식에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동학을 바라봄과 동시에 한국-아시아를 넘어선 서양 사회와 공존을 꾀해야 한다.

자생적 지구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양극성의 성질을 넘어서 '양극성을 어떻게 통합하는지'의 문제에 있다. 서로 다른 개념과 다른 층위와 수준의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관건이다. 동학과 평화학을 같이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 학문이 각각

동아시아와 서양의 관점에서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을 통합적인 에너지와 흐름으로 보고 설명했다는 점, 하나의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개인과 사회에 접근하고, 실제적인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학과 평화학이 연결되는 지점을 ‘자생적 지구화’ 관점에서, 특히나 자생적 지구화를 통해 일어나는 생명·평화와 전환의 역동을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존재적 차원: 주체성과 객체성

### 2.1. 존재의 의미를 누가 부여하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를 가진다. 그로 인해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을 감각하고, 인지한다. 하지만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넘어선 인간의 존재 가치는 사회·문화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우주의 초월성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존재를 무한하게 바라본다. 이에 존재가 고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반면,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자신을 고정한다. 그리고 이는 존재에 안정을 줌과 동시에 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유한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존재는 어떻게 주체성을 지니는가? 혹은 주체성을 잃고 객체화되는가?

신분이나 계급 사회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인간이 자유를 갖게 된 이후, 주체와 객체의 구분은 조금 흐려진 듯 보였다. 하지만, 인간은 식민지-피식민지, 서구-비서구 등 또 다른 구분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의 경계와 이를 통한 갈등은 여전히 다양한 층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또한, 이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하나의 자본주의’로 통합되며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제3세계권에서 이에 대항하여 탈서구, 탈자본, 탈식민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보편의 차원으로 중심과 변방을 나누는 관점에서 벗어나 ‘로컬의 상대적 관점’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로컬 의식의 자각에서 발원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1)</sup>

### 2.2. 동학에서 주체성과 객체성

로컬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것에 대비하여, 동학은 일찍이 로컬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근대화의 초기부터 로컬의 상대적 관점을 취한 것이다. 당시 조선 사회의 지식인들이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로 나누어져 지식인 주도의 위로부터 대응을 했다면, 초기 동학은 민중적 차원에서 ‘보국안민’을 위한 주체적 대응을 펼쳤다.<sup>2)</sup> 이를 통해 지역과 민중을 바탕으로 한 동학의 사상은 타자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이 아

1) 박치완, 「탈식민지 관점에서 본 동학(東學)의 현대적 의미」, 『철학논집』, 제56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9. p. 146.

2)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김용휘, 모시는 사람들, 2021, pp. 45-46.

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의 방식으로 운동을 이끌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는 중심부에 있는 집단에 의해 객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객체로서의 관점 역시 가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동학이 중심이었지만, 국가나 관의 차원에서 동학은 주변부이자 객체적인 입장이었다. 힘의 관계에서 객체화된 동학은 스스로 만들어 낸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타자화된 객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의 양면성이 동학의 존재성에 역동을 만들어 낸다.

### 2.3. 평화학에서 주체성과 객체성

평화학은 크게 소극적 평화인 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인 Positive Peace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Negative Peace는 평화학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양상으로,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Positive Peace는 9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협력과 통합을 강조한다.

전쟁의 부재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평화학은 객체화된 주체성을 강조한다. 즉, 직접적인 폭력에 대항하는 주체로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거나 협상의 당사자로서 활동가의 평화적 행위에 초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분쟁지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의 개입으로 객체성을 갖는다. 반면, 좀 더 폭넓은 협력과 통합으로서 평화학은 주체화된 객체성을 강조한다. 즉,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전환하는 주체로서 공동체를 만들거나 소통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는 주로 서양에서 피식민지였던 로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객체적 입장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체성과 객체성의 양면성을 모두 함유한다.

### 2.4. 중심과 변방의 자생적 지구화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이는 단순히 로컬 의식의 자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로컬’로 돌아가자, ‘지역’과 ‘마을’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담론은 단지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이는 로컬 운동의 입장에서 반가울 수는 있지만, 이미 세계화와 자본주의가 곳곳에 진행된 상황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대다수의 청년 세대들은 이미 세계화·자본화된 도시에 더 익숙하다. 청년 세대뿐 아니라 산업화의 흐름에 따라 도시로 이동한 중장년 세대 역시 완전히 이전의 생활양식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 그 말은 로컬에서 절충안을 찾되,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학이 가진 자치 운동으로서 자기 조직화, 자기 결정, 자기 창조의 성격<sup>3)</sup>은 지구화 과정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 특히나 동학은 담론으로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활동으로 그 가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자생적 지구화의 과정에서 동학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찾게 하는 역할과 변방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860년대 시작한 민족·독립 운동 당시의 동학이 공동체-국가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1980년대 생명·평화 운동에서 동학은 마을 공동체-개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두 운동의 양상은

3) 『살림의 말들』, 모심과 살림 연구소, 2009, pp. 150-152.

공동체가 개인보다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흐름을 같이 한다. 이는 그 당시 주변화되고 객체화된 동학 세력에게 최선의 선택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구·공존(진)운동을 끌여가기 위한 동학은 개인이 강조되는 느슨한 공동체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충분히 보장하되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동학의 주체성과 객체성을 적절히 활용해야 동학의 지구화로서 확장이 가능해진다.

최근의 연구 경향에 따르면, 평화학은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의 관점으로 이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전(Interstate war)보다 내전(Civil war) 더 빈번히 발발하면서 분쟁지역의 갈등을 전환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평화프로세스가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이행이 진행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 있으면서 평화학과 UN의 평화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아직도 식민주의-탈식민주의 논의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강하다. 담론과 논의가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평화학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발휘되는 국제적인 힘은 있으나 2000년대 초반 논의에서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프로세스 내에서 다양한 생각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자체적인 내용과 수행의 깊이가 부족하다. 영성·수행의 차원에서 평화학은 인도를 비롯한 동양의 방식 또는 선주민 문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자생적이지 않을뿐더러 주체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를 보인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 토착적·자생적 변화라는 것은 나와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렇다면, 서양 사회는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가서 로컬 사람들을 활용한 기반 시스템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에서 피식민지였던 곳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서구의 산업화를 재생산하여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식민지가 자신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곳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들이 주체적인 방식으로 지구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 3. 시간적 차원: 인과성과 동시성

#### 3.1.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시간의 흐름은 순차적인 것과 동시적인 것으로 객관화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은 문제를 이분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브뤼노 라투르에 의하면, 좌파와 우파의 대립으로 극단화된 지구를 향한 정치는 양분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는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인정하되 다른 차원의 상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이는 대지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데, 대지는 겹겹이 쌓인 층에서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지금 발 딛고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성을 갖는다.

4)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브뤼노 라투르, 박범순 옮김, 이음, 2021.

### 3.2. 동학에서 인과성과 동시성

동학에서 수행과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간성을 갖는다. 동학의 수련방법인 주문 수련, 율령 등은 순차적인 과정이 아닌 파장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은 울림으로서 작용한다. 이는 우주와 사람 등 존재의 인식에 동시성을 부여한다. 반면, 사회와 우주가 연속적으로 공적인 질서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학은 인과성을 보여준다. 자연의 흐름과 중력의 세계와 같이 ‘대소유무’의 인과적인 시간성을 가지고 동학은 세계를 설명한다.

### 3.3. 평화학에서 인과성과 동시성

평화학은 평화프로세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정과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디 서부터 접근하고, 누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다. 따라서 어디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동시성의 측면에서도 평화학이 다뤄지는데, 그것은 갈등과 평화가 단지 인과관계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평화학에서는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된 관계나 갈등만이 아니라 현재 각 주체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 역시 중요하게 다룬다. 구조와 체계가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이해하되, 개인과 개별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순간의 역동과 변화를 유심히 관찰한다.

## 5. 통합적 차원: 합리성과 초월성

### 5.1. 평화와 전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앞서 존재-시간-공간으로 이어지는 동학과 평화학의 속성들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그 말은 평화와 전환의 중심이 어디서 발현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이를 통합적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존재-시간-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성과 초월성이 서로 어떻게 얽혀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5.2. 동학에서 합리성과 초월성

“최제우 선생은 조선과 동양의 몰락을 감지하고, 유학이 당면한 과제를 알고, 기독교-서학의 내용이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 유학이 현상의 관찰에 머물러 초월을 몰랐고, 서학이 추월을 인간 밖에 두어 외화되었다고 판단하고서, 스스로 기도를 통한 초월적 체험을 시도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양쪽의 모순을 극복한 내 안의 하느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sup>5)</sup>는 분석처럼 동학에서는 수운과 해월의 초월적 체험을 통해 동학과 하늘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동학이 초월적인 부분에만 머물지 않는 것은 당대의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텍스트에 있다. 동경대전을 비롯한 그 당시 동학의 저서들은 사회상을 여러 측면에서 드러냄과 동시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개벽파선언 : 다른 백년 다시 개벽』, 조성환·이병한, 모시는 사람들, 2019. p. 46

김지하가 말한 울려와 신인간<sup>6)</sup>에서는 동학이 전승한 ‘산상유수’ 개념이 나온다. 이는 산 위에 물이 있는 우주의 질서라는 뜻으로, 아래 있어야 할 물이 산 위에 있는 질서가 초자연적인 질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신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주의 질서로서 가장 높은 초월적 가치관과 물건을 사고파는 속된 장바닥, 두 개의 극과 극이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월성과 합리성을 나타내는 이 두 개념은 서로 부딪히면서 모였다 흩어진다. 그러면서 상생하는 조화를 만들어 낸다.

### 5.3. 평화학에서 합리성과 초월성

평화학은 서양의 철학, 역사, 문화, 페미니즘 등 다양한 학문적·실천적 통합을 통해 합리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경험에 입각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평화학과 평화프로세스는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을 추구한다. 이러한 바탕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서양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얽혀있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민주주의 양상은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며 전환되었는데, “이 전환은 중세 사회에 대한 반동이다. 이른바 “종교개혁”에서 “인권선언”이 일관되어 상통하는 것은 “자아(我)”의 각성에 다름 아니고 직접간접으로 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두이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근대문화의 주조이다.”<sup>7)</sup>

서양의 평화프로세스는 이러한 근대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종교·전체주의로 인한 집단·국가 중심사고의 반향으로 나타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 중심주의 사고가 서양의 평화프로세스에 짙게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토대 위에 유럽을 중심으로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국가 공동체인 EU가 설립되며 평화학은 국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발현되게 되었다.

한편으로, 평화학은 근대 합리주의에 대한 반향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이는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태도가 내재 되어있는 동시에 샤머니즘의 요소를 함께 섞어 감각적인 측면을 강화한다. 이성의 전환, 감각의 전환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의 접근을 시도한다.

### 5.4. 실용과 영성으로서 자생적 지구화

1860년대 동학이 생기고, 1900년대 초반까지 동학은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그중에는 서학의 영향도 빠질 수 없다. 그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서구 사회가 한국, 그 너머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아시아 전역이 서구의 영향으로 물든 시기, 서구의 물결이 거세게 동아시아로 밀려오는 와중에 동학이 탄생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1960년대 평화학이 생기고, 2000년대 초반까지 평화학은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그중에는 동양의, 아시아의 영향이 빠질 수 없다. 인도를 비롯한 동양의 명상, 영성, 철학 등이 평화학에 영향을 주었다. 서구의 이성 중심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를 여실히 느낀 것이다. 그 시점에서 동시에 서구 전역에 요가, 명상

6) 『김지하 전집1』, 김지하, 실천문학사, 2002. pp. 537~542

7) 『중국문화요의 : 인류사에서 중국문화의 특수성』, 량수밍, 강중기 옮김, 산지니, 2021. pp. 78~80

등 동양의 수행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밀려가는 시기가 왔다. 서구 사회에 영성과 문화적 콘텐츠로서, 그를 넘어선 담론으로서 동학이 드러날 시기가 온 것이다.

평화학은 신생학문이지만, 유엔 평화프로세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정책적으로 쓰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제 정세가 전쟁의 부재인 소극적 평화에서 협력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적극적 평화로 이행되면서 평화프로세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쓰이며, 이에 따라 평화학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학문적인 내용이 아직 빈약하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영성적 부분에 있어 동양의 방식 또는 선주민의 게더링 문화 등을 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대문화에서 보이는 토착문화를 흡수하는 서구 식민주의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평화학은 객관적인 프로세스로서만 머무르지 않고, 영성적 차원으로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깊이의 측면에서 자생적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

## 6. 결론. 특수성을 넘어서는 전환적 통합의 모색

동학은 어떻게 서학의 지구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토착적·자생적 근대화를 바탕으로 서로가 연결된 자생적 지구화를 서양 사회에 전달하고 퍼트리려는 것을 나의 역할로 삼는다. 한국에서 생겨난 여러 창의적인 방식의 수용과 변화를 역으로 서양 사회에 적용해보고, 서로가 얽히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나의 지향점이다.

한국은 여러 문화가 복합적으로 섞이면서도, 현대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모델이다. 정리되지 않은 채 충돌하고, 거칠게 논의되는 부분에 있어 통합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수직적 관계에 있던 존재들이 동등한 위치 또는 합의점을 가지고 화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평화와 통합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소통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상호 간의 소통이자 여러 차원과 수단의 총체이다. 따라서 이는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빠르며, 때로는 보이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 맞춰가는 것이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이다. 에이리 프롬에 따르면, 이는 사랑의 길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은 폭력 행사의 길과 반대다. 사랑은 이해하고 설득하며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애쓴다.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킨다. 더 많이 느끼고 관찰하며 더 생산적이고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sup>8)</sup> 따라서 평화와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보다 자신을 바꾸려 애쓴다.

당사자성이 부재한 평화는 그저 공허한 담론에 불과하다. 현재 서구 사회가 직면한 평화

8)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에이리 프롬 지음, 라이너 폰크 엮음, 장혜경 옮김, 김영사, 2022. p. 28.

담론의 허점은 이에 기인한다. 또한, 한국사회 역시 그러한 공허를 전쟁 이후부터 오랜 기간 경험해왔다. 그 경험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축적되어 사람들로 하여 평화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잃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빼앗김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감과 불안, 독립성의 부재라는 결핍을 낳게 되었다.

“타인에게 복종하거나 그에게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사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과 독립이라는 인간의 기본 특성을 상실한다. 진정한 사랑에는 타인과의 연관성과 자신의 온전함이 보존된다.”<sup>9)</sup>

한국과 서양의 담론에 차이가 있다면 방향성에 기인할 것이다. 처음에 존재와 관련되어 논의를 시작했듯이, 서양 사회가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한 타인의 당사자성을 지워버렸다면, 한국에서는 타인, 특히 서구 근대화와 연관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신의 온전함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상실과 부재를 넘어서려면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다양성을 함께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위해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평화의 움직임이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한반도만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논의가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 자생적 지구화는 그 씨앗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

9) 같은 책, p. 41.

## 참고문헌

-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모시는 사람들, 2021.
- 김지하, 『김지하 전집1』, 실천문학사, 2002.
- 량수밍, 『중국문화요의 : 인류사에서 중국문화의 특수성』, 강중기 옮김, 산지니, 2021.
- 모심과 살림 연구소, 『살림의 말들』, 모심과 살림 연구소, 2009.
- 박맹수, 「동학의 공공성 실천과 그 현대적 모색-‘한일 시민이 함께 가는, 동학농민군 전적지를 찾아가는 여행’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2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 박치완, 「탈식민지 관점에서 본 동학(東學)의 현대적 의미」, 『철학논집』, 제56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9.
- 방호범, 「동학의 후현대 “경향성”연구」, 『동학학보』, 제18호, 동학학회, 2009.
- 브뤼노 라투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박범순 옮김, 이음, 2021.
- 이문수, 「동학의 현대적 성격에 관한 고찰」, 『동학연구』, 제14·15집, 한국동학학회, 2003.
- 조성환·이병환, 『개벽과선언 : 다른 백년 다시 개벽』, 모시는 사람들, 2019.
- 조성환, 「근대과 공공성」, 『공공정책』, 132집, 한국자치학회, 2016.
- 표영삼, 「동학의 현대적 이해」, 『동학연구』, 제8집, 한국동학학회, 2001.
- Paul R. Diehl. (2016). Exploring Peace: Looking Beyond War and Negative Peace  
*International Studied Quarterly* 60: 1-10.
- Paul R. Diehl, Gary Goertz, Yahve Gallegos. (2019). Peace data: Concept, measurement, patterns, and research agenda,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8(5): 605-624.
- Nils Petter Gleditsch, Jonas Nordkvelle, Håvard Strand. (2014). Peace research-Just the study of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51(2): 145-158.

## 평화학, 동학 어디에서 만나는가

최재형

‘자생적 지구화’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되는 단어이다 보니 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 토착적, 자생적 근대화가 한국의 관점에서는 적절하지만 서양사회는 근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도 이미 근대화가 진행되었는데 왜 서양에서는 쓸 수 없는가? ‘토착적 자생적 근대화’라는 개념은 ‘자생적 지구화’의 개별적인 관점과 공동체적인 관점을 두루 내포할 수 없는가? 자생적 지구화 개념의 차별점을 좀 더 설명해달라.

Q 동학이 서학의 지구화에 기여하여 과거 피식민지배 국가의 자생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회연은 기존 평화 프로세스가 식민주의-탈식민주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과거 피식민국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동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자생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Q내 생각에 회연이 주장은 동학의 철학적 측면에서 자발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평화 프로세스, 제도의 변화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측면 즉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제도나 사회 시스템의 자발적 변화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수행적 측면의 동학을 평화학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

Q 자생적 지구화는 개별적, 공동체적 관점을 모두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화는 동학을 개별화, 개인화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를 포함한다고 했다. 그리고 서학의 지구화 역시 ‘개인적, 자생적’ 변화라고 했다. 이 두 측면 모두 ‘자생적 지구화’의 개별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동학과 평화학은 접점이 있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당장 불연기연, 따로 또 같이라는 동학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같이, 즉 공동체적 관점에서 동학과 평화학의 접점은 무엇이 있나?

-주체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처한 상황을 스스로 재정립한다면, 즉 상황을 인식하는 의식이 바뀐다면, 대응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동학에서 척사/개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보국 안민이라는 제 3의 길을 찾을 수 있었고 평화학에서도 전쟁과 전쟁이 아님의 상태 외에 적극적 평화라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갈등 상황이 많아지면서 소극적 평화 조차도 달성하는게 힘들어 보인다. 평화학의 평화 프로세스는 갈등에서 평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 여기서 동학의 불연기연의 개념들과 원불교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는 개념들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어느 정도 소극적 평화는 달성되고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는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

는 것 아닌가? 이러한 개념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회와 개인의 의식 성숙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평화학과 동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끌 수 있는가?